웃음이 희망이다

KBS N

얼큰한 여자들

알코올사피엔스

오늘도 우리는 한 잔 하러간다



KBS drama KBS joy KBSN SPORTS KBS W KBS Kids KBSN LIFE KBSN PLUS

KBS N

magazine

VOL.32 NOVEMBER. 2018

얼큰한 여자들

알코올사피엔스

어제 우리에게 무슨일이...



KBS N magazine

VOL.32 NOVEMBER. 2018

한국방송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조성과 전문성을 키워 뉴미디어를 선도하며,
급변하는 미래 방송 환경을 주도하는
일류 방송기업으로 도약해나가고 있습니다.

발행인 박정미
발행일 2018. 11. 6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전화 02-787-3455
기획 정책기획팀 정윤재, 손영주
제작 · 디자인 DNC www.thednc.co.kr

www.KBSN.co.kr

KBSN_OFFICIAL

인스타그램에서 KBS N을 만나보세요!

〈KBS N 매거진〉에 대한 의견이나 정기구독 요청(무료)은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 pr@kbs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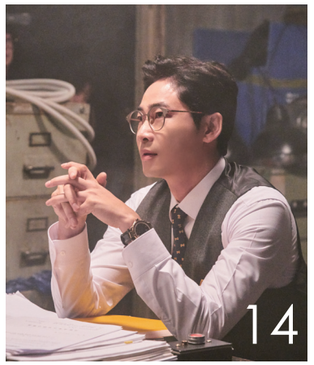
창의적인 기업문화와 트렌디한 정보가 담긴 〈KBS N 매거진〉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세요.
www.kbsn.co.kr/magazine.do



Cover Story
인생의 해답이 필요한 알코올 사피엔스들을 위한 술방 예능
〈얼큰한 여자들〉







04
N focus
천운을 타고난 사람들
〈차트를 달리는 남자〉

06
Special 1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사연
〈연애의 참견2〉

08
Special 2
알코올 사피엔스들의 주(酒)슐랭가이드 출발!
〈얼큰한 여자들〉

12
Contents
일상 속 궁금한 법률 이야기,
단돈 500원으로 해결!
〈코인 법률방〉

14
Program
악덕 상사의 파란만장 갱생기
〈죽어도 좋아〉

16
Issue
KBS N 박희상 · 한유미 해설위원이 말하는
도드람 2018~2019 V-리그 전망

18
Inside
2018 KBS N 체육대회 개최

20
N news
KBS N 신규 입사자 소개 外

22
Notice
〈KBS N 매거진〉 주요 배포처 안내

놀랍고도 뭉클한 감동이 있는 이야기

〈차트를 달리는 남자〉 천운을 타고난 사람들

매주 특별한 차트로 우리들의 토요일 오후를 책임지고 있는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 지난 10월 27일 방송된 〈차달남〉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실화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동적인 이야기들 속으로 들어가 보자.



미스터리 사건부터 막장 사건까지!
전 세계 별별 사건을 끝까지 파고 파는 차트쇼



1

7번 죽다 살아난 불사조 사나이

크로아티아에 7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고는 프란 세릭이 청년이었던 1962년에 일어났다. 그는 열차 탈선 사고를 당했지만 팔이 부러지는 경상만 입었다. 다음해는 비행 중 갑자기 문이 열려 문밖으로 날려져 버린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건초더미 위에 떨어져 목숨을 부지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버스 추락 사고에 이어 위험천만한 자동차 사고도 두 번이나 겪었다. 이에 MC 이상민은 "이쯤 되면 집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황당해했다.

이후 평온한 삶을 살던 세락. 하지만 노년에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다시 찾아왔다. 63세이던 해에는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 다음해는 운전하던 중 마주 오는 트럭을 피하다 가드레일에 충돌했다. 그 충격으로 9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진 그의 자동차. 하지만 그는 나무 위에 떨어져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에 눈이 휘둥그레진 두 MC는 "신이 항상 함께하나 보다", "불로장생하겠다"고 말했다.

더욱 놀라운 건 2005년 그가 구입한 복권이 60만 파운드(한화 약 8억 7천만 원)에 당첨되었다는 사실! 천운에 행운까지 거머쥔 세락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1위로 선정되었다.



2

비행기 사고에서 생존한 사람들

지난 8월, 멕시코 북부 두랑고에서 멕시코시티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 후 몇 분 만에 기체 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비행기에는 아기 2명을 포함, 총 103명이 탑승해 있었다. MC 조우종은 "비행기를 타다 조금이라도 '쿵' 내려앉으면 너무 무섭다"며 아찔해 했다.

기체가 육지와 크게 두 번 충돌했을 만큼 심각했던 사고. 그러나 놀라운 건 승객 전원이 생존했으며 대부분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다수의 승객이 직접 '걸어서' 비행기에서 나왔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승무원들의 대처능력 덕분이었다. 기체가 화염에 휩싸이기 전, 승객들이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전원 대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생존자들은 "신께 감사를 드린다"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MC 이상민 역시 "사망자가 없어 다행이지만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3

17일 만의 귀환! 태국 유소년 축구팀

올 여름, 폭우로 동굴에 17일간 고립된 뒤 기적적으로 구조된 태국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3위에 랭크되었다. 선수 12명과 코치 1명은 지난 6월 23일, 훈련을 마치고 인근 동굴을 관광하러 갔다가 갑자기 내린 비로 수로의 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되었다.

태국 정부는 1천여 명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였고 실종 열흘 만에 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원 생존해 있었지만 체력이 떨어진 상태라 바로 구조할 수 없었던 상황. MC 이상민도 "아이들을 바로 구조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에 당국은 대원들이 고립된 지점으로 가서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고 아이들이 건강을 회복한 뒤 구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1주일 후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고 사흘에 걸쳐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

구조 뒤 건강을 회복한 소년들은 한 인터뷰에서 "이번 일로 더 강해졌고,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어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킨 사람들



8위로는 천운이 아닌, 어느 한 사람의 용기와 희망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미국 미시시피에서는 운전자들이 합심해 불길에 휩싸인 자동차 속에서 할머니와 손녀를 구출해냈고, 일본의 한 노인은 행방불명된 아이를 찾는데 도움을 자처, 아이를 부모의 품에 돌아가게 할 수 있었다. 천운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의 용기에 뭉클해지는 순간이다.

〈차트를 달리는 남자〉
KBS Joy 매주(토) 오후 2시 30분 방송

영화를 방불케 하는 리얼 연애 고민

〈연애의 참견2〉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사연

연애의 잔혹한 현실을 낱낱이 보여주고, 사랑에 지친 이들에게 이별을 권하는 KBS Joy 〈연애의 참견2〉. 특히 실제 시청자들이 보낸 연애 고민을 재구성한 드라마 형식의 사연은 시청자와 5MC에게 공감과 분노, 설렘과 애틋함을 선사하며 매회 화제를 낳고 있다. 최근 참견러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막장연애 2ROUND

연애의 참견2

12년 지기 남사친♥여사친, 우리 사이 썸일까, 쌈일까?

〈연애의 참견2〉 9회에서는 같은 이름을 가진 남사친을 12년간 짝사랑하다 그의 마음도 똑같았다는 걸 알게 된 사연녀의 이야기가 공개되었다.

고민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동고동락하던 남사친과 술김에 키스를 하게 되면서 다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학생부터 지금까지 쭉 남사친을 좋아하고 있었지만 계속 타이밍이 엇갈리면서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사친이 고민녀를 불러냈고 좋은 예감으로 나간 자리에서 남사친의 여자친구를 소개받았다. 고민녀는 둘의 다정한 모습에 상심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한 남사친이 집으로 찾아와 뜬금없는 고백을 한다. 고민녀를 예전부터 좋아하고 있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고백하지 못했다고, 차이거나 헤어지면 친구로도 못 남을까 봐 친구로라도 곁에 있고 싶었다고 말이다. 심지어 그는 키스도 사실 술에 취한 고민녀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한 거였다며 고민녀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남사친에게는 결혼을 결심한 여자친구가 있었고, 사연녀는 그런 남자를 붙잡아야 할지 그냥 보내줘야 할지 참견러들에게 조언을 요청했다.

이에 서장훈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남사친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백을 하는 건 '나를 흔들어 달라'는 신호일 것"이라는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또, 그는 "(사연녀가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것"이라며 "결과와 관계없이 바로 고백하라"고 전하며 다른 참견러들과 함께 용기를 불어넣었다.







친구의 남자를 사랑하는 나, 우정과 사랑 모두 지킬 수 있을까?

친구의 남자를 좋아하게 돼 사랑과 우정을 다 잃을 처지에 놓인 고민녀의 고민이 10회에 소개되었다.

모태솔로인 고민녀와 달리 그녀의 친구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랑을 찾는 '연애중독'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고민녀는 사내 연애를 시작한 친구로부터 그의 남자친구 지훈과 인사하게 된다. 친구에게 모든 걸 다 바치는 '순정파' 지훈, 그런 지훈을 홀대하는 친구를 보며 고민녀는 점점 지훈을 마음에 두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와 상상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 그럴수록 친구를 향한 원망도 커져갔다.

그렇게 '이 남자 옆에 내가 있었다면'하는 상상과 죄책감을 반복하던 중, 친구의 이별 소식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한 달 뒤 고민녀는 지훈에게 고백을 한다. 그 마음을 받아들인 지훈은 고민녀와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었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 밤새 연락이 되지 않으면 각종 의심에 사로잡혀 지훈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그러다 친구가 둘의 연애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고민녀는 사랑과 우정,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한 조언을 참견러들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숙은 "남자로서 지훈이 어떠냐는 친구의 떠보는 말에 처음부터 솔직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고, 곽정은은 "자기가 쏜 화살이 자기를 맞힌 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주우재 역시 "심폐소생이 불가한 관계"라며 보탰다. 더불어 참견러들은 "고민녀가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불안한 상상의 연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먼저"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더하며 고민녀를 위로했다.

〈연애의 참견2〉
KBS Joy 매주(화) 밤 10시 50분 방송

드라마타이즈 Real 술방 예능

〈얼큰한 여자들〉
알코올 사피엔스들의 주(酒)슐랭가이드 출발!

지난 10월 25일 KBS Joy 새 예능 〈얼큰한 여자들〉이 첫 방송을 했다. 30대 여성들이 겪는 일과 사랑, 다양한 이야기들을 미니 드라마와 리얼 취중 토크로 담아낸 프로그램이다. 일상에 지치고 인간관계에 상처받으며 늘어가는 것은 주름뿐인 이들을 위해 뭉친 네 명의 30대 여자 연예인들! 부딪치는 술잔과 함께 위로와 공감을 건네는 〈얼큰한 여자들〉이 시작부터 높은 공감을 자아내며 본격 인기몰이에 나섰다.

네 여자의 술방 토크, 웃음과 공감 기대

신개념 술방 예능 〈얼큰한 여자들〉의 출발이 순조롭다. 지난 10월 25일 첫 방송된 〈얼큰한 여자들〉에서는 알코올 사피엔스 4인방의 술꾼 일상 퍼레이드가 펼쳐지며 여성 시청자들의 취향을 저격했다. 실제 30대인 배우 박하나, 개그우먼 김지민과 김민경 그리고 모델 송해나가 출연해 유쾌한 호흡을 선보였다. 이미지 변신을 꿈꾸는 일일극 여신 박하나의 쉽지 않은 예능 도전과 30대 직장녀 역을 맡은 김지민의 치열한 직장생활, 성우를 꿈꾸는 텔레마케터 역을 맡은 김민경의 꿈을 향한 고군분투 그리고 욜로(YOLO) 인생을 즐기는 프리랜서 모델 역으로 분한 송해나까지 연기와 실제를 오가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드라마에 이어지는 네 여자의 진솔한 취중 토크도 30대 여성들이 '바로 내 이야기'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감대와 흥미를 이끌어내며 이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게 만들었다. 덕분에 방송 이후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는 프로그램을 향한 기대와 호평들이 이어지며 신개념 술방 예능의 탄생을 알렸다.
일상 속 고민들과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나누는 한 잔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때문에 술잔 속 인생을 이야기하는 네 여자들의 술방 토크가 목요일 밤마다 기다려질 것 같다.



박하나 김지민 알코올사피엔스 INTERVIEW 얼큰한 여자들 김민경 송해나

**드라마타이즈 Real 술방 예능 〈얼큰한 여자들〉의 촬영현장.
신사동의 한 칵테일바에서 술방 토크를 위해 모인 네 명의
출연자들과 막간 인터뷰를 가졌다. 술 한 잔 안 마셨는데도 마치
소주 한 병쯤은 마신 듯 술술 터져 나오는 유쾌하고
웃음꽃 만발한 인터뷰를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술방 예능'이라는 개념도 독특한 프로그램의
출연 섭외가 왔을 때 소감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박하나 주로 혼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참여하게 되면서 "드디어 나도 연예인 친구랑 술 마실 수 있다!"라고 좋아했죠.

김지민 예전에는 방송에서 너무 술 이야기를 많이 했나 싶어 걱정도 했는데, 이 프로그램 연락 받고 '아, 술 이야기하길 너무 잘했다' 생각했어요.

김민경 개그맨 되면서 술을 끊었는데, 올해 초부터 다시 급격하게 많이 마시면서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술방을 잡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소문을 내야 하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이제 연애 안하고 있다고 소문 내주세요~ 하하

송해나 저도 방송에서 술 많이 마신다고 이야기 했던 게 소문이 났는지, 어느 방송에서 저를 '술 요정'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왜?'라고 생각했는데, 이 방송을 하게 되면서 술 이야기를 한 게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술을 마시며 촬영을 하다 보니
컨디션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박하나 촬영 2~3일 전부터는 술을 덜 마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촬영할 때 술을 실제로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입 딱 마실 때 간절해야 해요.

김지민 컨디션은 약이 해결해주죠~ 하하. 술을 좋아하지만 나름의 철칙이 있죠. 스케줄 전날은 절대 안 마셔요.

김민경 촬영 전날에는 술을 안 마시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다음날 술을 잘 마시기 위해 워밍업 차원에서 조금 마시기도 해요.

송해나 부기가 있어서 보통은 촬영 전날 술을 안 마시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되는 날이면 안주 없이 술만 먹죠.





〈얼큰한 여자들〉은 리얼과 연기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 같은데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숨은 노력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박하나 예능을 하고 싶어서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예능이 참 잔인하더라고요. 한 번에 빵 못 터뜨리면 다 편집되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술도 좋아하고 예능을 하고 싶은 여배우. 제가 이 캐릭터 자체에요.

김지민 다들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떠나서 하고 싶던 일이나 직업이 있잖아요. 저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똑 부러지는 커리어우먼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요. 또 남자에 철벽녀 이미지도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제작진과 사전 인터뷰를 할 때 말씀 드렸는데, 의견이 모두 반영된 거예요. 비록 드라마지만 정장도 입고 대리만족 하고 있어요.

김민경 제작진이 캐릭터를 같이 만들자고 하셔서 어렸을 때 꿈이 성우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살려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연기인데도 막상 해보니까 성우가 너무 힘든 일이더군요. 아마도 해보지 않아서 더 동경했던 것 같아요.

송해나 무표정할 때 좀 세 보인다는 소리를 듣는데, 막상 얘기해보면 얘기 같은 말투나 밝은 성격 때문에 다르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반전 이미지로 언니들 앞에서 당당히 표현하는 막내 캐릭터였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직업도 모델이니까 캐릭터 표현이 편한 편이에요.

30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30대들이시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박하나 에피소드나 대본 내용이 다 누군가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죠. 30대뿐 아니라 나이를 넘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인 것 같아요.

김지민 저희가 작가님들과 매회 인터뷰하는데, 그때 한 내용들이 대본에 많이 담겨요. 그래서 요즘엔 생활 속 에피소드나 30대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기억해 두려고 노력하죠.

김민경 요즘은 일반인 친구들하고 더 많이 대화해요. 일할 때 스트레스며 연애 이야기 등 우리 나이 또래가 실제 겪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에 쉬운 것 같아요.

송해나 정말 리얼이라서 더 공감돼요. 인터뷰 하다가 일반인 친구들의 실제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시는 분들도 '저 이야기는 바로 내 얘기인데!'라고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연기하는 입장에서 또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얼큰한 여자들〉의 가장 큰 매력이 뭘까요?

박하나 이 프로그램 하면서 제일 좋은 게 혼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기 전에 미리 안주와 술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술을 마실 때 같이 한 마디씩 하면서 드시는 거죠!

김지민 보시는 분들이 대리만족할 수 있도록 대신 풀어주는 것 같아요. 직장인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촬영할 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보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김민경 라디오를 하다 보면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사소한 복수를 하고 싶다'는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하지만 현실에서 복수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방송이니까 대신 복수해드릴 수 있죠. 그걸로 스트레스를 푸시면 좋겠어요. 또, 실제 저희들의 단골 술집과 맛집이 방송에 나와요! 30대 여자 술꾼들을 위한 엄선된 술집과 안주를 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송해나 여성들만 나오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술 마시면서 무슨 이야기할까?' 궁금한 남성 시청자분들도 저희 프로그램을 보면서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얼큰한 여자들〉에 대해 앞으로의
기대와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하나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또 프로그램에서 너무 과한 행동을 하면, 저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30대 여자의 거울 같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지민 〈얼큰한 여자들〉은 매회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20~30대 여성들이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남성분들도요! 많이 참여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만들어가요!

김민경 이미 시즌2 예약되어 있는 거 맞죠?(웃음)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답답한 부분이나 고민들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힐링 술방이 되면 좋겠어요.

송해나 30대가 되면서 20대보다 몸도 좀 안 좋아지고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들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정보도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경 자, 이제 마시자!

송해나 시작해야죠!

박하나 김지민 한 잔 할까?! (모두 술잔을 들어 올리며)

〈얼큰한 여자들〉
KBS joy 매주(목) 밤 10시 50분 방송

국내 최초 이동식 길바닥 로펌

〈코인 법률방〉
일상 속 궁금한 법률 이야기, 단돈 500원으로 해결!

법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500원이라는 저렴한 상담료로 속 시원한 상담을 제공해주는 KBS Joy 〈코인 법률방〉의 문이 지난 10월 7일 활짝 열렸다. 신선한 포맷으로 화제를 몰고 있는 〈코인 법률방〉은 의뢰인들의 고민 해결은 물론 곳곳에서 터지는 예능감까지 두루 갖추며 '신개념 법률 예능'의 탄생을 알렸다.







#상담료 500원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어벤져스 변호사군단

말 많고 탈 많은 이 시대에 억울한 일들로 법적 분쟁에 휘말려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엄두조차 나지 않는 높은 변호사 수임료! 이에 KBS Joy 〈코인 법률방〉이 법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거리로 직접 나섰다.

국내 최초 이동식 길바닥 로펌 〈코인 법률방〉은 단돈 500원이라는 저렴한 상담료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거리 한복판에 세워진 한 평 남짓한 코인 법률방에서, 의뢰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해 초밀착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부터 판사 출신 변호사까지 여러 분야의 변호사들이 패널로 출연하며,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을 만나기 위해 마트, 법원 앞, 대학교 등 매회 장소를 변경해 각양각색의 고민들을 파헤쳐 줄 예정이다. 500원에 허용된 상담 시간은 10분! 그 이상의 상담을 원할 경우 500원을 추가하면 되며 수임료는 무료법률상담기관에 기부될 예정이다.





#코인 법률방 사무국 #대표 송은이 #사무장 문세윤 #각양각색 사연

코인 노래방 근처에는 본부를 마련, MC 송은이, 문세윤이 변호사들의 상담 내용을 지켜보며 공감과 웃음을 더한다. 코인 법률방 대표 MC 송은이는 섬세한 감성으로 의뢰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며, 사무장 MC 문세윤은 특유의 친근함으로 의뢰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속상하고 쓰린 마음을 토닥여주는 해피 바이러스 역할을 자처한다.

코인 법률방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사연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웃집 개에 의한 소음 사연, 무개념 보복운전으로 목숨을 위협받았던 사연, 미용실에서 시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환불을 원하는 사연 등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밀착형 고민들이 소개되어 공감도는 물론 재미까지 잡는다.

각양각색 사연과 더불어 이들의 고민을 귀담아 듣는 변호사 군단의 통쾌한 솔루션을 지켜보는 것 또한 관전 포인트! 그 누구보다 정의의 가치에 의거한 이들은 명쾌한 정답을 도출해내며 시민들의 따뜻한 수호천사로 활약할 예정이다.

10~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상담이지만, 이로 인해 누군가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마음의 위안을 받고 갈 수 있다. 앞으로 〈코인 법률방〉이 상처받은 의뢰인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수호천사' 같은 프로그램이 되어주길 바라본다.

〈코인 법률방〉
KBS Joy 매주(일) 오후 4시 방송



악덕 상사의 파란만장 갱생기

〈죽어도 좋아〉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죽어도 좋아〉는 악덕 상사의 갱생기를 유쾌하게 그려 '2015년 오늘의 우리 만화'를 수상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해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더 리얼하고 쫄깃하게 그릴 뿐만 아니라 답답한 현실에 사이다를 통째로 투척, 짜릿한 대리만족을 선사할 예정이다.



서로를 물어뜯기 바쁜 이들의 좌충우돌 오피스 라이프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죽어도 좋아〉는 안하무인 백진상(강지환 분) 팀장과 그를 개과천선 시키려는 이루다(백진희 분) 대리의 오피스 격전기를 담은 작품이다.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어느 회사에나 있을 법한 악덕 상사와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짙은 공감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어서 독보적인 오피스물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백진상은 치킨 회사 마케팅팀 팀장으로, 모두가 죽이고 싶어 할 만큼 진상 중의 진상이다. 세상천지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기본, 원칙, 상식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신뿐이라고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원리원칙주의를 가진 인물이다. 융통성이라고는 1도 없고 직구로 막말을 퍼부어, 보는 이들의 복장을 터지게 하지만 치명적인 매력으로 미워하래야 미워할 수 없는 강지환표 '백진상'을 그릴 예정이다. 그동안 수많은 작품을 통해 카리스마와 코믹을 넘나드는 연기를 선보인 강지환이 이번 작품을 통해 또 어떤 새로운 매력과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된다.

백진희는 현실 직장인들의 답답한 속을 뚫어줄 '사이다 대리' 이루다를 연기한다. 이루다 대리는 중간만 가는 삶을 추구하는 야무진 직장인으로, 순조롭던 일상에 침투한 악덕 상사 백진상 팀장에게 거침없이 대항하며 현실 직장인들의 공감과 응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죽어도 좋아〉 KBS drama
매주(목) 낮 12시 50분,
매주(목) 밤 12시 10분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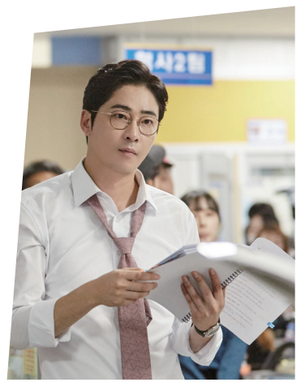
공감과 통쾌함으로 현실 속 우리들을 위로해주다

매 작품마다 훈훈한 매력을 발산해오던 공명은 뻔뻔함과 여유로운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는 강준호를 연기한다. 강준호는 개발팀 대리이자 사장 조카인 금수저 신분이다. 꽃미남 비주얼은 기본이고 능글맞은 성격과 감탄을 자아내는 4차원 매력까지 더해 매력 부자의 면모를 뽐낼 예정이다.

인교진은 사장 강인한 역을 맡는다. 집안의 둘째 아들인 그가 각종 설움을 딛고 오매불망 기다려온 후계자 자리를 완벽히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 박솔미는 전략기획 본부장 유시백으로 분해 남다른 카리스마를 발산할 예정이다.

〈죽어도 좋아〉 속 현실적인 캐릭터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김민재는 백진상, 이루다와 함께 일하는 마케팅팀 과장 박유덕 역을 맡았다. 박유덕은 매일같이 야근을 해야 일을 해낼 수 있는 고군분투의 삶을 살지만 사랑스러운 자식을 위해 두 눈 꼭 감고 일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가장이다. 류현경은 마케팅팀 대리 최민주 역으로 팀 내 유일한 워킹맘이다. 그녀는 악덕 상사 백진상에 맞서 동료들을 전폭적으로 지원 사격하며 진한 동지애를 선보일 예정이다.

팍팍한 현실에 통쾌한 대리만족을 선사하여 우리들의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사이다 같은 드라마 〈죽어도 좋아〉! 이들이 그려내는 파란만장 오피스 라이프를 통해 하루를 웃음으로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



KBS N 해설위원에게 물었다!

도드람 2018~2019 V-리그 전망 올해 V-리그 우승 후보는?

V-리그 남자부 7개 구단과 여자부 6개 구단은 전력을 보강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빛나는 열매'를 기대하며 배구 코트 위로 돌아온 남녀부 13개 구단의 선수들! 이들과 시즌 내내 함께 호흡할 KBS N 박희상·한유미 해설위원에게 올해 V-리그 전망에 대해 물어보았다.

남자부 리그

작년에 창단 첫 우승을 한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은 지난 시즌 우승 멤버들이 건재하고, 경기력이 서서히 올라가는 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우승 후보 0순위다. 시즌 동안 선수들의 체력을 얼마나 잘 유지·보충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대캐피탈은 문성민,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 합류한 전광인, 파다르의 리시브 덕분에 현대캐피탈만의 공격력이 살아나는 느낌이다. 또, 대한항공과의 개막전에서 알 수 있듯 박주형의 안정된 서브 및 리시브로 팀이 안정되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주전 세터로 활약할 이승원의 경기력에 따라 분위기가 좌지우지될 수 있어 이원중과 서로 부담을 나눠가질 필요가 있다.

순위를 요동치게 할 중위권 팀으로는 삼성화재가 있다. 다소 세트 리딩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지만 올해 삼성화재로 이적한 송희채가 공격력을 더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OK저축은행은 센터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평이 있지만 타점 높은 공격력을 자랑하는 요스바니가 있고, 공격에 날개를 달아줄 조재성이 있어 삼성화재와 중위권 싸움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우리카드는 아가메즈가 확실한 한 방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 이어지는 공격의 흐름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중앙에서의 득점에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아가메즈 외에도 확실한 해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전력은 노재욱이 세터로 들어오면서 기동력이 좋아졌지만, 시즌 시작 직전에 외국인 선수 교체를 단행해 팀 분위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상위권에 뒤쳐지지 않는 공수 조화를 가지고 있는 KB손해보험은 중앙과 왼쪽 공격, 리베로, 세터까지의 포지션 조화가 잘 이뤄져 있다. 그러나 시즌 첫 라운드부터 주전 세터와 외국인 선수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여 팀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항공 점보스 / KB손해보험 스타즈 / 한국전력 빅스톰



박희상 KBS N 해설위원

삼성화재 블루팡스 /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 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 / 우리카드 위비

여자부 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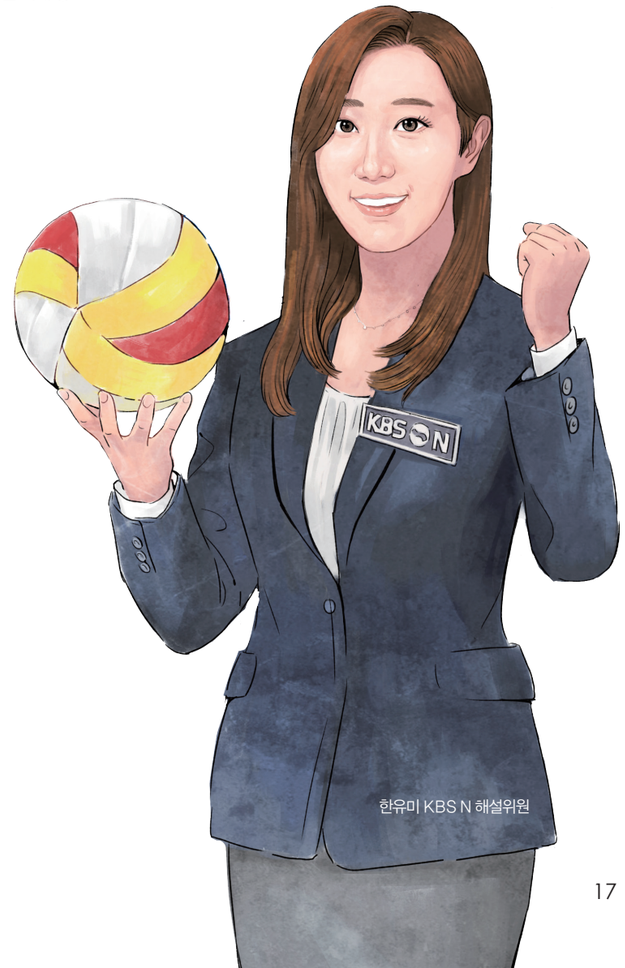
전년도 통합 우승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시즌 우승 주역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에서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다. 백업 자원들의 기량이 훌륭하기 때문에 팀이 심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승 경험도 경기 운영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예상한다.

지난 시즌 최하위에 머무른 흥국생명은 비시즌 동안 전력을 보강하는 데 힘썼다. 높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테랑 센터 김세영을 영입했고, 윙을 보강하기 위해 레프트 김미연과 계약했다. 여기에 이재영이 대표팀을 풀타임으로 뛰면서 한 단계 성장해 돌아왔다. 범실을 줄이고 체력 관리와 부상 방지에 힘쓴다면 한국도로공사를 위협할 막강한 팀이 될 것이다.

우승과 준우승을 한 저력이 있는 IBK기업은행은 언제든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팀이다. 리베로가 약하고, 좋은 센터가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업은행이 풀어야 할 숙제다. 외국인 선수 어나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김수지의 활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작년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KGC인삼공사는 대표팀으로 차출된 선수가 한수지 한 명이어서 팀 호흡을 맞출 시간이 길었다. 최은지는 2018 보령·한국도로공사컵 여자프로배구대회(KOVO컵) MVP를 차지하며 한껏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다. 그러나 KGC인삼공사가 상위권을 유지하려면 최은지 외에 득점을 내줄 만한 또 다른 국내 공격수가 필요하다.

GS칼텍스는 서브와 윙 공격수가 좋지만 센터가 약한 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즌을 앞두고 무릎 부상으로 주전 세터가 교체되어 호흡을 맞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를 치르며 손발을 맞춰 나가야 한다. 외국인 선수가 아직까지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현대건설은 올 시즌을 앞두고 김세영의 FA로 높이에서 공백이 생겼고, 베키 혹은 김주향이 리시브 라인에 포진되면서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블로킹 1위' 팀답게 높이에서는 괜찮은 모습이나 불안한 리시브를 해결해야 하는 동시에 국내 공격수를 최대한 살려야 할 것이다.

KGC인삼공사 /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 GS칼텍스 서울KIxx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 IBK기업은행 알토스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한유미 KBS N 해설위원



2018 KBS N 체육대회 개최

높아진 가을 하늘처럼 한 뼘 더 깊어진 우리

지난 10월 15일 경기도 고양시 충장근린체육공원. 150여 명의 KBS N 가족들이 신나는 한주를 열었다.
KBS N 박정미 사장 외 감사팀, 경영관리실, 4개 본부(정책기획본부 · 스포츠본부 · 편성제작본부 · 마케팅본부) 직원들,
해설위원들은 드높은 가을 하늘을 지붕 삼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 흥겨웠던 'KBS N 체육대회' 현장을 소개한다.



즐거움이 Up! 단합력 Up!

운동장에 모인 직원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안부를 묻는 사이, 강성철 아나운서의 힘찬 개회 선언으로 축제의 서막이 올랐다. 개회사에서 박정미 사장은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진한 동료애를 느끼길 바란다"며 축하했다. 이어서 구호에 맞춰 준비운동을 했다. "PT 체조에서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습니다!"라는 강성철 아나운서의 말에, 직원들은 미션을 한 번에 성공해내며 단합력을 보여줬다.

체육대회는 청군(열정팀), 백군(화합팀)으로 나뉘어 축구, 여자 팔씨름, 줄다리기, 2인 3각, 릴레이 등 다양한 경기를 펼쳤다. 가장 먼저 열린 축구 경기에서부터 팽팽한 대결이 이어졌다. 선제골은 청팀 김연민 사원(경영관리실)의 발끝에서 나왔다. 이에 경기를 지켜보던 동료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졌다. 후반전에서 백팀의 공격이 활발해졌지만 그럴 때마다 청팀 골키퍼가 멋진 선방을 선보였다. 이후 백팀 홍성표 사원(광고3팀)의 멋진 슛으로 1:1 동점이 만들어졌다. 이렇듯 쟁쟁한 승부로 승부차기까지 가게 된 두 팀. 여기서 청팀의 계속된 실축으로 축구는 백팀의 승리로 끝이 났다.

가을 하늘만큼 깊어진 추억

여자 팔씨름은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출신인 백팀 김은혜 해설위원의 승리로 돌아갔다. 번외경기로 장성호 해설위원과의 승부가 펼쳐져 웃음을 주기도 했다. 다음은 줄다리기로, 아직까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청팀의 반격을 기대케 했다. "하나둘, 하나둘!"하는 구호에 맞춰 팀원들은 호흡을 맞췄다. 1:1로 맞선 상황에서 백팀이 세 번째 판의 승리를 가져가며 줄다리기도 백팀의 승으로 끝났다.

다음은 고무신 받기 게임이 진행됐다. 고무신을 던지면 상대방이 이를 등에 멘 바구니에 담는 게임으로, 백팀이 2개를 연달아 받으며 기분 좋은 스타트를 알렸다. 하지만 청팀이 뒷심을 발휘하면서 청팀의 승리로 돌아갔다. 2인 3각 릴레이에는 박정미 사장이 청팀 주자로 출전, 이건호 사원(기술제작팀)과 호흡을 맞췄다.

체육대회의 대미는 릴레이 경주! 각 팀 남녀 주자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출발선상에 섰고, 응원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된 순간. 청팀이 앞서나가는 듯했지만 두 번째 주자가 막상막하의 실력을 보이며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 청팀 김종욱 사원(마케팅본부)이 엄청난 스피드를 보이며 결승선을 통과,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승패를 떠나 부서 간, 직급 간 벽을 허물고 함께 땀 흘린 시간! 그렇게 KBS N 직원들의 마음속에는 행복한 추억 한 페이지가 아로새겨졌다.













KBS N의 새 식구가 된 신규 입사자를 소개합니다!



(왼쪽부터) 최산, 이건호, 강지연, 이호인, 최호빈, 서성민 사원

정책기획팀
강지연 사원

❶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❷ 오후 5시가 넘도록 연락이 없어 우울했는데, 50분 후 합격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방방 뛰었습니다.
❸ 업무 능력 및 회사 사업에 대한 이해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❹ 터닝 포인트. 법무와 감사라는 갈림길에서 고민하던 끝에 찾은 단 하나의 길이며, 이것이 제 커리어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문화사업팀
이호인 사원

❶ 경력직으로 입사했지만 열정, 의지만큼은 신입사원 못지않게 충만한 '이호인'입니다.
❷ 최종면접 때 대표님께서 "첫 이직의 기회인데 소감이 어떠세요?"라고 질문하셨는데, 만감이 교차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더욱 기뻤습니다.
❸ KBS Kids 채널의 업계 위상 및 매출 포지션을 상위권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❹ 제2의 인생. 첫 회사에서 배움을 채웠다면, KBS N에서는 회사에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스포츠제작팀
최산 사원

❶ 스포츠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 선배님들과 축구를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❷ 오후 5시가 넘었을 때는 마음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시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감정의 동요가 더욱 컸습니다.
❸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잘 하겠습니다!
❹ 1: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맞이한 하프타임. 전반전을 1:0으로 마친 상황은, 이기고 있는 팀에겐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지고 맙니다. 'KBS N 입사'라는 기회를 얻은 만큼 후반전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술제작팀(영상)
서성민 사원

❶ 방송을 할 땐 긴장하고 딱딱하게 일하지만 놀 땐 재밌게 노는 사람입니다.
❷ 종일 연락이 없어 침울한 마음으로 영화관에 갔었는데, 쿠키 영상이 시작될 때 연락이 왔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❸ KBS N의 영상을 책임질 사람으로서 훗날 감각 있는 영상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❹ 썸. '썸'을 탈 때처럼 설렘, 행복, 두려움, 불확실함이 공존하는 마음으로 KBS N에 첫발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제작팀(음향)
이건호 사원

❶ 요리입니다. 음향 또한 맛있게 만들어 시청자에게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❷ 작년 여름부터 불합격 연락만 받았는데 합격 소식을 듣게 되어 바로 다음날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❸ 입사 전 보았던 사주에서 '올해 방송에 출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후 제작진 스크롤에 제 이름이 나갔습니다.
❹ 콘크리트. 콘크리트와 철근은 열팽창 계수가 같습니다. 같은 비율로 팽창하는 철근과 콘크리트처럼 저 또한 회사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광고4팀
최호빈 사원

❶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듣는 것을 잘합니다.
❷ 발표 전날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합격 전화를 받고는 긴장이 풀려 곧장 잠들었는데, 다음날 느꼈던 개운함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❸ 신입사원으로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이후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이자 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❹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가 많은 선수들에게 드림 클럽인 것처럼, 제게 KBS N은 늘 꿈꾸던 직장입니다. 함께하게 된 만큼 최고의 선수로 거듭나겠습니다.

66
KBS N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99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 방송

KBS W 채널에서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를 지난 10월 24일 첫 선보였다. 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는 극 중 시간을 멈추는 능력자 문준우(김현중 분)가 아버지 유산으로 3층 건물주가 된 김선아(안지현 분)를 만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이다. 〈시간이 멈추는 그때〉는 KBS W 채널에서 매주 수 ·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KBS N, 어린이 뮤지컬 〈핑크퐁과 상어가족의 겨울나라〉 공연 추진



KBS N이 〈핑크퐁과 상어가족의 겨울나라〉 공연을 추진한다. 패밀리 뮤지컬 〈핑크퐁과 상어가족의 겨울나라〉는 화려한 무대와 영상기술로 환상적인 겨울나라 무대를 구현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아름다운 핸드벨 연주와 상어가족의 신나는 댄스파티가 신나게 펼쳐질 〈핑크퐁과 상어가족의 겨울나라〉는 오는 12월 마포아트센터(12.1~12.2),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12.8~12.9), 고양어울림누리(12.15~12.16), 세종문화예술회관(12.22~12.23)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KBS N, 매직 콘서트 〈2018 이은결 TRACE〉 전주 공연 진행



KBS N이 매직 콘서트 〈2018 이은결 TRACE〉 전주 공연을 진행한다. 가족, 연인 등 전 연령을 타깃으로 한 매직 콘서트는 마술과 예술 그리고 기술과 감성의 조화 감동의 공연을 구현할 예정이다. 특히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마임, 드로잉 등 새롭게 시도하는 다양한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이은결만의 독특한 퍼포먼스를 연출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2018 이은결 TRACE〉는 오는 11월 16일(금)부터 11월 18일(일)까지 전주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KBS N 매거진〉 주요 배포처 안내



KBS N 본사 / KBS 미디어센터

KBS 본관 · 신관 · 별관 로비 / 인재개발원

KBS 지역총국

부산총국/ 울산국/ 창원총국/ 진주국/ 대구총국/ 안동국포항국/ 광주총국/ 목포국 순천국/ 전주총국/ 대전총국/ 청주총국/ 충주국/ 춘천총국/ 강릉국/ 원주국/ 제주총국

KBS 계열사

KBS미디어/ KBS아트비전/ KBS비즈니스/ KBS미디어텍/ KBS시큐리티

인천국제공항 스카이허브라운지

1터미널 동편·서편/ 인천공항 탑승동

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협회

SO

〈CJ 헬로비전〉

양천/ 은평/ 부천/ 김포/ 북인천/ 충남/ 경남/ 가야/ 해운대기장/ 영남 신라/ 영동/ 강원/ 대구수성/ 대구동구/ 호남/ 전북/ 영서/ 아라/ 나라

〈티브로드〉

도봉/ 강북/ 노원/ 광진/ 성동/ 강서/ 동대문/ 서대문/ 종로중구/ 새롬/ 서해/ 남동/ 수원/ 기남/ 한빛/ 에이비씨/ 중부/ 전주

〈딜라이브〉

송파/ 서초/ 구로금촌/ 중앙/ 용산/ 마포/ 서서울/ 노원/ 북부/ 중랑/ 동서울/ 경기/ 우리/ 경동/ 동부/ 강남

〈CMB〉

한강/ 동서/ 대전/ 충청/ 광주/ 광주동부/ 전남/ 대구동부/ 대구수성

〈현대HCN〉

서초/ 동작/ 관악/ 충북/ 금호/ 새로넷/ 경북/ 부산

〈기타〉

금강방송/ 남인천방송/ 서경방송/ 씨씨에쓰 충북방송/ 아름방송/ JCN 울산중앙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KCTV 제주방송

〈IPTV 및 위성〉

KT/ SKB/ LG U+/ SKY LIFE

공공도서관

〈서울-27개소〉

강남도서관/ 대치도서관/ 개포도서관/ 청담도서관/ 역삼도서관/ 금천구립정보도서관/ 남산도서관 외

〈인천-3개소〉

인천광역시립수봉도서관/ 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 부평기적의도서관

〈경기-36개소〉

고양시립화정도서관/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경기도립중앙도서관광주분관/ 경기도립성남도서관/ 하남시신장도서관(구 하남시립도서관) 외

〈대전-3개소〉

가수원도서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충남-9개소〉

공주도서관/ 논산강경도서관/ 당진시립중앙도서관/ 보령도서관/ 부여도서관 외

〈충북-5개소〉

제천시립도서관/ 청주북부도서관/ 청주시립도서관/ 충북중앙도서관/ 충주시립도서관

〈대구-3개소〉

대구광역시립남부도서관/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울산-1개소〉

울주도서관

〈부산-4개소〉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외

〈경남-12개소〉

거제도서관/ 의령도서관/ 진주연암도서관/ 창녕도서관/ 마산도서관/ 창원도서관진해도서관/ 통영시립도서관 외

〈경북-11개소〉

경산시립도서관/ 경주시립도서관/ 구미시립중앙도서관/ 영천시립도서관/ 울진남부도서관/ 포항중앙도서관 외

〈광주-4개소〉

광주남구문화정보도서관/ 광주광역시립사직도서관/ 금호평생교육관/ 광주중앙도서관

〈전남-6개소〉

광양시립중앙도서관/ 나주시립도서관/ 목포시립도서관/ 전라남도립도서관/ 순천시립중앙도서관/ 여수시립돌산도서관

〈전북-7개소〉

군산시립도서관/ 김제시립도서관/ 전북도청도서관/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외

〈강원도-6개소〉

강릉시립중앙도서관/ 속초도서관/ 원주시립도서관/ 춘천남산도서관 외

〈제주도-1개소〉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제주도서관

대학도서관

〈서울-30개소〉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경희대학교 도서관/ 서강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외

〈인천-3개소〉

경인교육대학교 도서관/ 인하대학교 도서관/ 인천대학교 도서관

〈경기-11개소〉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과학학술 정보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도서관/ 용인대학교 도서관 외

〈대전-9개소〉

한남대학교 도서관/ 대전대학교 도서관/ 대전보건대학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외

〈충남-6개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도서관/ 공주대학교 도서관/ 순천향대학교 도서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도서관 외

〈충북-11개소〉

공군사관학교 도서관/ 서원대학교 도서관/ 충북대학교 도서관/ 중원대학교 학술정보센터/ 세명대학교 도서관 외

〈대구-6개소〉

대구교육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의료원 의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외

〈부산-8개소〉

부산외국어대학교 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부산가톨릭대학교 도서관/ 경성대학교 도서관 외

〈경상-14개소〉

울산대학교 도서관/ 인제대학교 도서관/ 진주교육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외

〈광주-5개소〉

호남대학교 도서관/ 광주대학교 도서관/ 조선대학교 도서관/ 전남대학교 도서관/ 광주교육대학교 도서관

〈전라 - 6개소〉

목포대학교 도서관/ 우석대학교 도서관/ 원광대학교 도서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외

〈강원-2개소〉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한림대학교 도서관

〈제주-1개소〉

제주대학교 도서관

카페 배포

서울 신촌/이대/홍대/ 건대 대학가 지역 100개 매장 카페(스타벅스, 커피빈 외) 배포

